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9월 1일 ( 제1269호 )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 배려

기도원에 계시는 장로님이 탈이 났다. 하필 그때가 기도원 공사 중이었고, 그분이 포클레인 담당인지라 솔직히 일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 장로님은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미안했던 모양이다. 내게 ‘좀 나아졌으니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장로님에게 말했다. “이 일보다 중요한 게 장로님입니다. 여기 걱정일랑 말고 몸을 추스르세요.” 그런데 이 말을 곁에서 들은 성도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열 마디 조언보다 한 번의 배려가 낫네요.”

그렇다. 실수한 아랫사람에게 다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따스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 먼저다. 상처 입은 친구에게 충고보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미는 것이 낫다.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괴로움에 싸여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어떤 충고도 하지 않고 그저 물고기를 구워 조반을 먹게 하신지 않았던가. 또 욕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따스한 위로였지 않았을까.

배려(配慮)의 배(配)는 ‘짝’이란 뜻이 있고, 려(慮)는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을 의미한다. 즉 배려는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으로,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배려의 의미는 이것이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롬15:1~2).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이 편한 곳에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초보운전자 뒤에서 뽕뽕 클랙슨을 울려대지 않는 것,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 장애인을 우선 생각하는 것, 대중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핸드폰 소리를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이 배려이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배려가 마치 시냇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듯, 아름다운 사회, 멋진 세상을 만든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 거대한 서치라이트만 빛이겠나. 어두운 밤에는 반딧불도 빛을 내더라. 추울 때는 신문지 한 장도 보탬이 되더라.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베푸는 작은 배려, 작은 위로가 세상을 환하게 밝히리라.

#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 영원 세계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가 없으니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다.

목사님은 하계산상집회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강조하셨다. “기도는 내 삶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내 목회 40년은 오직 기도로 만든 작품이다!”

그러면서 저녁 집회 때마다 중간에 불을 끄고 1시간 기도를 시키셨다. 이미 오전, 오후, 저녁 예배 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또 기도를 강조하시며 기도를 시

게 영상으로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다. 모두가 목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낸 작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목사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침표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련회, 여름성경캠프, 하계산상집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의 한 파트가 지나고 우리는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하

(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집회의 경험이 무엇인가? 자기 교인이 2만 명이니 집회 장소를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던 카니발(Carnival) 목사의 말이 무색하게 집회 첫날 체육관 바닥조차 제대로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다. ‘당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봐도 무슨 소용이냐’고 목사님은 ‘후회보다 아픈 것이 없으니 항상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 그래서 누가 복음의 말씀을 ‘나의 목회 철학’이라며 항상 되뇌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우리 모두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2019년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경)

킨 것이다. 집회에 제대로 참석한 성도들은 하기 싫어도 최소 하루 4시간을 기도하며 3박 4일간의 산상집회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 교단은 기도하는 교단이요, 기도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가 없다. 그러나 목사님을 따라 기도의 맛을 본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 지금까지 기도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정말 가슴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6회에 걸친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와 11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루어낸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함

고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모두가 동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 번 해보았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한 마귀도 반드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마치 여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군대가 작은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다가 참패를 당한 것처럼, 정말 어이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늘 예로 드시는 아르헨티나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성회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신 바 그대로다. 항상 전쟁의 위협 아래 살아야 하는 우리 민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오랜 통일의 염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보자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성회를 계속하겠다고 이미 선포하셨다.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에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함께 이루어보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8월 26일(월) ~10월 4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3:1~9)

# 기도는 내 삶의 기반시설 구축이다

1964년 12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공식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서독으로 나가 병원, 탄광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일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은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눈물로 위로하고, 독일의 아우토반(고속도로)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독일의 아우토반 건설이 독일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라인강의 기적을 낳게 되었다는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귀국하여 바로 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대가 엄청 났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도로에다 무지막지한 돈을 퍼다 넣느냐’,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심지어는 현장에 드러눕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결심은 단호했고, 바로 이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인프라 구축’이라 하는데, 사회가 발전하려면,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잘 되려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영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이는 영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없다면, KTX가 없다면, 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았다면 고속 성장은 있을 수 없듯, 기도가 없으면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大路)가 구축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통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집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

님으로부터 응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리고, 자유의 길이 열리니 문제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급할 때 하나님께 연락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단헛던 하늘 문을 연 것,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 무자했던 한나가 아들을 얻은 것,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 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기에, 하나님과의 통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 습 니 다. 하나 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대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 이름을 주사 통신 시설도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나고 막힌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계속 방치하면 망가지고, 아무리 굵고 좋은 인터넷 회선을 깔아놓아도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져 통신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로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통신 두절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이라 기록된 자들이 우리와 성령이 달랐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위대했기에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목회 40년을 돌아보면 ‘기도의 일생’이었다고 한 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물 없는 사막을 걸었고, 눈 덮인 산야를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안수한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을 때도 기도했고, 가족들이 다 떠났을 때도 눈물로 기도했고, 마스크이 저를 때도 기도했고, 낯설고 물선 외국 땅에서 집회할 때도 기도했고, 병이 났을 때도 기도했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을 때도 기도했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다 되나?’ 비아냥거린 자도 있었습니다. ‘잘 되나 보자.’ 하던 자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뚫을 때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

관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로를 통해 응답을 보내 주 셧

습 니 다. 길이 넓을수록 큰 차도 다닐 수 있듯이, 지속적인 기도가 큰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디 네가 잘되나 보자.’ 하고 참소하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이 납니다(사43:19). 기도하면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약5:15).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얽히고설킨 것들이 풀리고,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어집니다(시119:165).

더욱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는 외국어이듯, 방언 기도를 하면 막힘 없이 사통팔달로 행동할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을 받은 외적 증표요, 성령강림의 표적입니다. 방언기도는 사람도, 악한 영

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오직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입니다(고전14:2). 방언기도는 악한 영들조차 해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암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 통신병들이 모스 부호와 같아 하나님 외에는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방언은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인프라입니까?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엡6:18)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만사가 행통하며, 가난과 병과 고통이 물러갈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고전12:10). 또한 방언기도는 바다에서는 어뢰탐지기요, 하늘에서는 레이더 관측기요, 땅에서는 지질 탐사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창구입니다.

##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패 없는 총과 같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쉬지 말라 하신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살전5:17). 기도는 혼자서 은밀히 할 때가 있고(마6:6),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렘33:3), 함심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마18:19). 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으며(시126:5), 감사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빌4:6). 우리말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방언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고전14:2). 매일 이렇게 무시로 기도로 살면 기도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탈 나지 않고 갈 수 있고 (렘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며(눅22:46),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4:2).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줍니다. 우리는 10월 9일에 있을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하여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면 당일 날씨를 비롯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에 반드시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성령은 사랑이다

<제자입니까?>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저서들 가운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었다.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기억을 더듬어 그 대략적인 내용을 기술해보면 이렇하다.

어느 집에 사춘기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집안일로 바쁜 중에 설거지 좀 하라고 시켰더니 요리 뻘질거리고 저리 뻘질거리며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심지어 때로는 엄마 말에 이 핑계 저 핑계로 토를 달며 툭툴거린다.

그러던 중 딸 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겠다고.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남자친구가 오는 날이 되자 엄마가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매일 늦잠 자던 딸이 그날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설거지에 심지어 빨래까지 세탁기에 돌리며 집안 전체를 깔끔히 정돈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잘 보이고 싶은 남자친구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성경 말씀에 고개를 저어대던 자가 어느 날 성령을 받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

고, 전도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명령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을 안타까워하시며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붙여주셨다(창2:18). 하나님도 고독을 아시는 거다. 그래서 창조하신 인간과 가까이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외주하시며 동행하는 것보다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함께하시길 원하신다.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성령의 임재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문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고 계신다. “불쑥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성령의 사랑은 강요하는 강제적 사랑이 아니다. 오직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회개한 깨끗한 심령에 찾아오신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성령은 사랑이다.

Henry Han

:: 빛과 소금 ::

##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

예전부터 일기를 쓰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었다. 조금 쓰다가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다시 쓰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아마도 일기를 쓰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평소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일기에는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한 흔적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나 감동한 말씀, 또 내가 반응한 말과 행동, 깨달은 것 등등... 그렇게 기록하

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루하루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나는 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기는 나만 보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장차 나의 두 딸에게 내 일기를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쓰고 있다. 때론 부끄러운 고백도 담겨있고 나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앞으로 딸들이 나의 일기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다름 날은 더 주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다짐하게 된다.

물론 아직은 매일 쓰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꾸준히 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에는 일기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이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송지혜 집사

## 열심이 성공으로 이끈다

강철왕 카네기는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전신전화국의 전보 배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간혹 유명한 사람들의 우편물이 주소 없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배달 구역의 유명 인사들의 이름과 주소를 외워 실수 없이 정확한 배달을 했다. 그 결과 봉급이 2달러 25센트가 인상되었다. 훗날 세계적인 부호가 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 평생에 그때처럼 감격스럽고 기뻐했던 적은 없었다.”

작은 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이 카네기를 성공의 자리에 서게 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 우리가 과정에 열심을 갖고 충실해야 할 이유다.

목사님은 매 주일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빨간판, 초석언(言)을 보내신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점점 부재가 사고의 원인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남에게 맡기면 사고 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 권면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사도 바울 또한 기록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부지런과 열심의 결과는 성공, 나태함과 게으름의 결과는 실패이다. 부지런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 무질서가 팽창하면, 무너진다

무더운 여름, 수련회 및 하계산상집회를 통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라는 말씀처럼, 내 신앙도 관리와 점검으로 경영해야 한다.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전10:18). ‘부지런히 관리 점검하지 않으면 멸망하던 집도 고장 나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신다. 내 영혼도, 신앙도, 건강도, 관계도, 교회도, 사업도, 가족도, 모두가 관리 점검할 때 건강해진다.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며, 질서를 잡아 나가는 일이다. 질서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믿는 자는 질서 안에 애써 거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집중하는 것보다 흐트러짐을 선호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눕고 쉬기만 하면, 편안은 하겠지만 결국 건강이 무너진다.

‘엔트로피 법칙’, 곧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마치 작은 녹이 점점 그 쇠 전체를 잡아

먹고,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퍼져 버리듯 말이다. 무질서를 그냥 내버려 둔 결과다. 규칙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묶어두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과 질서가 싫어서 점점 멀어지는 인간들은, 무질서가 곧 자유인 줄로 착각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의 간섭에서 벗어나,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배척하며 각종 인간의 탐욕들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숭상하고 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가 정해놓은 질서들을 전복시켜 처단하고, 자유를 쟁취한 듯했으나 결국 무질서가 증가해 혼돈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개막식부터 불편했던 이유이다. 어린 자녀들이 보기에도 낮 뜨거운 장면들을 연출하고, 성경과 기독교를 조롱 섞인 패러디로 우습게 만들어 놓고는 포용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둔감시켰다. 무질서의 끝은 결국 붕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송지화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 언성히어로(Unsung 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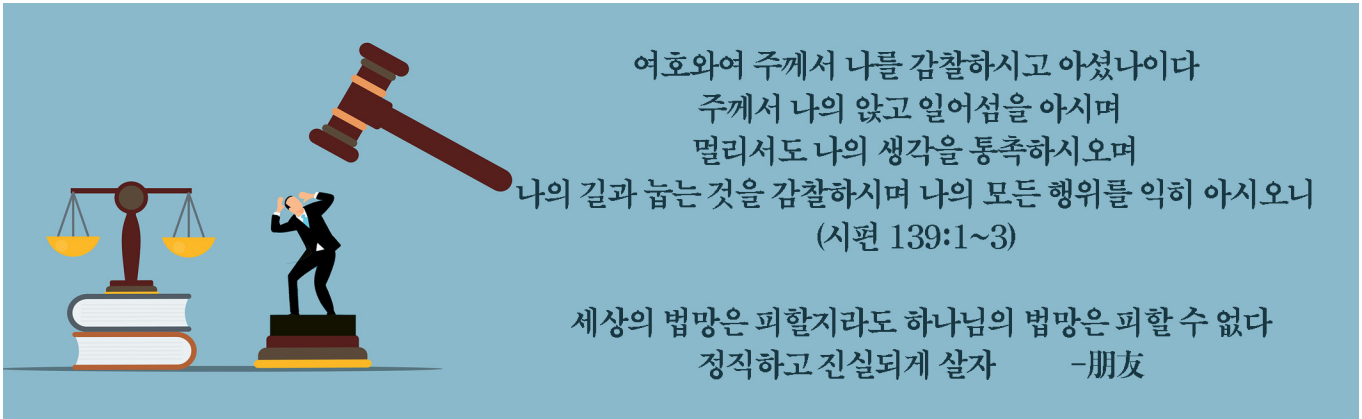
박지성을 평가하는 별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두 개의 심장’이지만, 그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붙여준 별명은 ‘언성히어로 (Unsung Hero)’였다. ‘언성히어로(Unsung Hero)’란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칭송받지 못한 영웅을 뜻한다. 본인이 화려하기보단 동료들을 빛나게 해주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도맡아 해주었던 박지성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붙여준 별명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수련회를 시작으로 성경캠프를 거쳐 2주간의 산상집회까지, 뜨거웠던 2024년 여름의 한 페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무리되었다. 연속되는 강행군 속에 우리 교단의 ‘언성히어로’들

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며, 자신을 불태웠다. 아름다운 기도원을 조성하기 위해 동분서주 피땀 흘린 ‘목사님, 장로님, 신학생’들, 자신보다 학생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교사’들, 쾌적한 수련회를 제공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수련생들을 섬긴 ‘연합회장단’, 자비량하여 기도원의 공간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전국의 성도님’들과 더운 여름 뜨거운 불 앞에서 식사를 도맡아 챙겨주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전 미화, 안내위원, 기획실, 방송팀, 음향조명팀, 헌금위원’ 등등 미처 언급하지 못한 예수중심교단의 수많은 언성히어로들은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을 섬겼고, 지금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그 가치를 총회장 목사님도 알고 계시기에, ‘머리가 가는 곳에 손발도 같이 간다. 내가 대통령 궁에 초대되었을 때 우리 일행이 함께 대통령 궁에 갔던 것처럼.’이라며 우리도 목사님 상을 함께 받는다고 누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목사님과 언성히어로들이 원팀(One Team)으로 똘똘 뭉쳐있기에 우리 교단이 늘 승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던 여름이었다. 10월 9일에 있을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에도 언성히어로들의 대단한 활약을 기대해본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2).

전호정

rockerjhj@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그리움의 향기

어린 시절,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 한마디도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험담한 친구가 자신이 한 말을 제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험담의 대상이 된 친구와 심하게 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그 일 이후로 앞에서든 뒤에서든 남에 대해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멀리했고,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비하하거나 험담하려고 할 때는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로 저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

다. 그는 기분이 나빠도 싫은 내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늘 주눅 들어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그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어눌한 말투일지라도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그와 다른 반이 되었고, 이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강의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출석을 확인하셨습니다. “유○○!”, 그 친구가 생각났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누군가 다가와 저를 부르며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그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때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저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학과의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고등학생 시절 있었던 좋은 일들만 골라 소문냈고, 덕분에 처음부터 친구들이 좋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그 시기를 스쳐 지나가는,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면, 그 친구에게 저 또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

릅니다. 그를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한 적도 없었고, 무언가 바라고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만, 그 친구 한 사람에게 보낸 작은 호의가 훨씬 큰 보상으로 저에게 돌아왔으니 깜짝 선물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그리움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찾을 수 없거나, 소천하신 분들은 더욱 그리웁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그분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가슴 벅찬 소망이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단에 서시는 모습을 늘 뵙는데도 그리웁습니다. 그리워서 찾아가면, 더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니 뵈면 뵈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만 갑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생각만 해도 진한 그리움으로 추억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치고 외로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품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리움의 향기 가득한 아름다리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정명관

v-777@naver.com

## 문제를 해결하는 법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주셨다. 내게 주어진 자유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셨지, “싸울 필요 없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벧전5:8-9).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병에 시달리는 고통 등 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 기도처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고 있다면 세상과의 한 판 승부를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분명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이다. 반면, 사람들에게 내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정과 해결을 구하고 있다면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정육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번 하계산상집회는 매일 4시간 이상 기도 시간이 주어졌다.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해결을 구했다. 마지막 날 성령세례 예배 때 눈물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 내가 기도원 가기를 선택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내 선택은 항상 기도의 자리임을 다짐해 본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신30:15-16).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